

# 토론회 개요 및 토론내용

## I. 개요

위원회는 2월 22일(수) 프레스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배상, 얼마가 적당할까?”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문제를 구체적인 조정사례를 통해 논의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사례를 다루었다. 이에 대해 취재현장에서 일일이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는 어느 정도 노출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개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었다.

또한, 언론사의 기사를 매개한 포털의 손해배상의 책임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포털의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언론사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2세션에서는 위자료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권성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는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코자 하는 것은 언론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언론과 국민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실무수습 중인 전국 로스쿨 재학생 10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 <행사개요>

- |       |  |
|-------|--|
| ◆ 일 시 | 2012. 2. 22. (수) 14:00 ~ 17:00                             |
| ◆ 장 소 | 프레스센터 6층 (언론중재위원회 회의실)                                     |
| ◆ 사회자 |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변호사)                                  |
| ◆ 참석자 | 총 50명 (로스쿨 학생 10인, 언론사 및 포털사 관계자 12인, 중재위원 2인, 사무처 직원 26인) |